

북한 결핵과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UN산하기구의 하나로서 인류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특히 전염성 질병의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관리분야에서 1963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WHO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국가결핵관리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건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WHO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WHO의 회원국이다. 북한은 WHO의 동남아시아지구(사무국이 뉴델리에 있음)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구(사무국은 마닐라에 있음)에 속해 있다.

북한과 WHO 사이에는 정기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수년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에 따라 결핵상황도 눈에 띄

게 악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WHO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북한정부가 WHO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핵관리분야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WHO의 북한결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 북한의 결핵현황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결핵문제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 인구 100,000명당 1년에 100~200명의 균양성 폐결핵 환자가 새로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O의 보고서에 따름)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핵치료용 약품,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나 재료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조차 전기나 수도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부족한 의료용품마저도 에너지난 때문에 필요한 곳에 수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료약품을 절약하기 위

1997년 북한정부기 WHO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핵관리분야의 장인을 요청하여 이때부터 북한결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종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남북협력위원회 위원장

해 튜브를 통해서 약품을 폐에 직접 주입하거나, 엑스선 필름이 없어 의사의 진단을 위태롭게 해가면서 엑스선 투시를 진단에 이용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근래 치료약품의 부족사태는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다.

북한에는 13개의 결핵전문의료기관과 60여 개의 결핵요양소가 있어 의료기관의 분포는 양호한 편이다.

2. WHO의 지원

1) 전문가의 방문

1997년 하반기부터 WHO의 결핵전문가가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북한에 대해 결핵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결핵전문가의 수나 방문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과 WHO 사이에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지원

2개도의 7개 시범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지원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북한의 약 1/3이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시범사업을 통한 복약확인하의 단기화학요법을 비롯한 사업시행 타당성 검토와 요원의 현지훈련, 의사와 결핵균 검사 책임자의 훈련(2주 과정), 훈련 자료의 작성 및 배포등을 하고 있다. 특히 복약확인하의 단기화학요법의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물자의 지원

1998년부터 유니세프(UNICEF)를 통해서 비시지백신과 결핵치료약품 등을 공급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금년부터 WHO의 약품기금(경제선진국에서 자금을 제공)에서 약품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원조 단체들도 지원에 협력하고 있어서 북한의 의료품 부족사태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 보인다. 卍